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

(고전8:1~13)

1.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4.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7.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
이 제목은 불교에서 큰 스님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비유에요.
꼭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도, 이 비유가 뜻하는 바가 아마도 불교가 시작된 때부터 그러니까 BC 4, 5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전 세계에 있는 사찰에서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곳곳마다 이 비유가 뜻하는 의미가 반복돼서 가르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경지는 해탈입니다, 우리가 해탈이라고 일컫는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불교가 존재합니다.
그 해탈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수련과 정진

을 얘기합니다.
이 수련과 정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바로,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계율을 통틀어 법이라고 말하고, 이 법을 통해서 해탈에 이른다고 하는 의미에서 법이 해탈에 이르는 길, 즉 도(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사성제 팔정도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四聖諦)라고 하는 것은 네 단어로 이루어진 아주 고귀한 가르침이라는 얘기에요.
고집멸도(苦集滅道)
고성제(苦聖諦), 세상은 고통의 바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어디서 생기느냐? 집(集), 집착에서 생긴다, 이걸 집성제라고 그래요.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의 모든 고통이 집착으로부터 생긴다는 가르침을 집성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런 고통을 가져다주는 집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멸(滅), 집착을 멸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 도(道)는 뭡니까?
고통을 주는 집착을 멸할 수 있겠느냐? 도를 따라라, 도를 이용해서 이 고해의 바다, 피안의 세계인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라!
그러므로 이 도(道)는 해탈이라고 하는 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배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배를 통해서 해탈이라는 피안에 이를지언정 결국 법이라는 것은 피안에 이르고 나면 버려야 될 것이다. 만약에 너희의 마음이 끝까지 이 깨달음, 도, 법, 이 지식, 이것에 묶여있는 한, 절대로 해탈에 이를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배로 강을 건넜는데 그 무거운 배를 머리에 이고 가는 고통을 왜 계속 안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해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에 이를 것이지만, 해탈에 이르려면 깨달음을 궁극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 라는 가르침을 계속 반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법에 의지해서 강을 건널 수밖에 없지만, 진정으로 강을 건넌 자가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그 법과 깨달음과 지식에 붙어있지 말고 그것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처럼 지식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오늘 본문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깨달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지식의 문제를 잘못 처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죄악일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제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라는 소재를 가지고.
우상제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라는 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기 삼아서 신앙에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신앙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마땅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요약하면 우상제물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시에 있는 모든 12개의 신전에서 날마다 수천 건의 제사가 행해지는데, 그 제사행위 때마다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60만 시민이 사는 고린도의 12개의 신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니까 그 제물들이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사제들이 먹고도 남아돌아가서 그 남는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곳곳에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이 편만하게 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아니면 식용을 위해 잡은 고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신앙적인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건 아니건 우상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고 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상을 신으로 알고 섬기던 습관의 잔재가 남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마음으로 굉장히 꺼려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그런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형제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꺼림직 한 마음가짐으로 먹게 될 때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믿음의 형제를 구원의 길에서 너희 스스로가 빗겨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다고 지식대로 행동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요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족하는 자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십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에요.
즉,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실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교인들이 우상 제물로부터 자유로워서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때문이다, 아들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지식은 너무나도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이요,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이런 지식에 근거해서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제대로 믿지 못해서 우상에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왜 맞춰야만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면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그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교만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처럼, 또 스테반이 돌에 맞았을 때 한 말씀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또, 안식일 분쟁 같은 것도 그래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끊어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에 추수하지 못하게 돼있는데 왜 너희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럴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셔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아, 잘못했소, 내가 주의를 주겠소!' 해놓고, 제자들만 앉혀놓고 '사실은 너희가 한 일이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교만하다 뭐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교인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지식이 없는 자들이 지식이 있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을 아마 판단하고 비판했을 겁니다, 저들의 신앙이 잘못 된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려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의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자체보다도,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대하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우상 제물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자세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상 제물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주초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등의 문제들.
십계명과 율법과 같이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명령이 아니라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디아포라'의 문제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곧바로 우상 제물을 문제 삼지 않고 1, 2, 3절의 얘기를 말씀해주신 겁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줄은 아나…' 지식이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 때문이다'라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다음에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식을 가졌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식의 근거에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아신다'는 뜬금없

는 얘기가 붙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얘길까요?
오늘 본문이 참으로 심오한 본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고 만물은 하나님으로 비롯되었다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깨닫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어, 그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라는 지식에 마음이 붙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내가 어떤 신앙적인 깨달음과 지식에 마음이 딱 붙어있게 되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계시며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생명을 지탱하고 계시는 실제 그 하나님께 마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모든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지식과 그 깨달음 속에서 가리켜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라는 얘기에요.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내 속에 알고 있고 기억돼 있던 지식이 떠오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물주 중에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라는 깨달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물주 되신다, 내 아버지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 지식에 머물러 있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식에 붙들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적인 깨달음이 지식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고 지식이 내 마음에 켜켜이 쌓여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그 쌓여가는 지식에 마음이 머물면서 쌓여가는 지식만큼 마음이 높아져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 지식이 높아지면, 지금 현재 여기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라이브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묻는 대신에, 내 마음속에 쌓여 있는 지식으로부터 내가 답을 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지식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게끔 하는 배가 아니라, 계속 내 마음이 붙어있는 자랑의 근거로 생각되어서 내 마음에 켜켜이 쌓여갈 때, 신앙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지식 안에서 답을 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많은 가르침을 줄 수조차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버린다는 얘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고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지도자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깨달음은, 예를 들어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라이브 연결을 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을 해서 우상 제물 같은 문제가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행동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상 제물은 함부로 먹지 말라는 답을 주셨을 것이라고, 사도바울 자신이 우상 제물 문제를 놓고 라이브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들은 대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교회에서 지식이 있다는 자들의 문제는 뭐였나 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으면, 그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이 약해 우상 제물 앞에서 고민하는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우상 제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유롭지 못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묻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듣고 행동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 문제에 한해서는 사도바울이 대답을 들어본바 '아직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삼가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그들의 약한 믿음이 잘못된 깨달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일깨워주고 새로운 깨달음을 줌으로써 믿음이 더 강한 상태로 끌어올리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지식, 그 지식 위에 너희 마음이 근거되어 있다면 너희 스스로가 마음이 높아진 것이고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서있는 것이다'
신앙적인 지식도 쌓이게 되면 그 지식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답을 내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점을 지적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느냐?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너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바 되었고,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 우상 제물 때문에 고민하는 형제 앞에서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된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었다,

라이브로 연결이 됐어야 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지식에 마음이 붙어있고 묶여있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 라이브 연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주어질 텐데, 그럴 때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깨달음과 지식에 근거해서 너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그 지식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라이브로 연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며 행동하고 결정하며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가 필요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모든 깨달음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배입니다.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를 버리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깨달음조차 뒤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라이브로 연결이 가능해집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서 매순간마다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을 때, 우리 마음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3절의 말씀처럼 상호연결이 이루어지는 라이브 연결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깨달은 지식에 근거해 행동하고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그 지식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연결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